

“씻겨주고 말동무까지 해주니 자식보다 훨씬 낫지”

재가 목욕 요양보호사 동행해보니

2인 1조 목욕·손톱관리·면도…

답차서 하루 8명 돌봄 서비스

신장 이상증세 발견 치료 받기도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표정 밝아진 어르신 보면 뿌듯”

“씻겨주고 아픈 곳이 어딘지 말 안해도 알아주고 말 동무도 해주니, 자식보다 훨씬 낫지”

지난 6일 낮 12시께 찾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2차 아파트 주차장 한켠에 있는 금빛재가복지센터 1t 목욕 차량을 이용한 어르신의 말이다.

목욕을 준비하고 있는 차량에서 요양보호사 조모(여·62)씨가 뜨거운 김과 함께 탑차의 문을 열고 나왔다. 조씨는 영상 4도 정도의 서늘한 봄 날씨였지만 방수앞치마를 두른 반팔 차림에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KF94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올해로 재가 목욕 서비스 4년째인 조씨는 해가 뜨기 전 탑차 내 기온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조씨의 업무는 2인 1조로 이뤄진다. 두명에서 한 어르신의 탈의부터 목욕, 탈수와 보습, 손·발톱 관리와 면도 등을 맡는다. 조씨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광주 어디든 탑차를 직접 운전해 이동한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면 목욕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하수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

어르신을 모시고 탑차 내부로 들어가 조씨는 30분 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나왔다.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자 내부에 고여있던 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머리와 상의도 물로 흠뻑 젖어있었는데 조씨는 앞치마를 했어도 흐르는 땀은 어쩔 수 없었다며 웃어보였다.

조씨는 “젖은 상태에서 찬 공기를 맞다 보니 한 여름에도 추위를 느끼는 일이 다반사라 매일같이

감기를 달고 산다”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욕시나 다칠까 늘 노심조사해야 하고 하루 최대 8명까지 어르신 목욕을 도맡고 있어 일이 끝나면 진이 다 빠진다”고 말했다.

최근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의 집을 직접 찾아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 요양보호사를 찾는 손길이 늘고 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모두들 겨우내 목욕 때를 밀고 새 단장에 나서지만, 독거노인들은 스스로 목욕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재가 목욕 서비스는 요양 등급(1-5)을 받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청인 한명당 차량 내 목욕 서비스 비용은 8만 2160원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이 전액을 지원한다. 요양 등급에 따라 6%(4930원), 9%(7394원), 15%(1만 2324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나뉘인다. 최대 주 1회가 원칙이며 요실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초과할 수 있다.

조씨와 같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재가 목욕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경우 가족이 있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 독거노인에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몸을 닦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거기가 자녀가 있더라도 타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지역 독거노인은 2018년 4만 7485명에서 2022년 6만 5616명으로 5년 새 2만여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재가목욕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몸을 거들다보니 힘들어 재가목욕서비스를 하려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몸만 힘든 것이 아니다.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차량에서 목욕을 하다보니 주차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목욕 후 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차를 하수도 인근에 주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수도 근처에 주차를 하면 집에서 나오는 동선이 길어져 이동을 해야 하는 노인들도 힘들고 부축해야 하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가 10일 어르신 재가 목욕 서비스를 진행한 후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다. (공무는 노인복지센터 제공)

요양보호사들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가 목욕 서비스는 ‘한줄기 빛’과 같다는 것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말이다.

이날 목욕 서비스를 받은 오성지(여·78)씨는 “한달에 2번 정도 이용하는데,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목욕 때가 벗겨지고 가벼워진 느낌을 받는다”며 “혼자 있다보면 입 한번 뻥긋 하기도 어려운데 말동무도 해주고 말처럼 잘해주니 자식보다 낫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뭍”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자식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건강 상태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다. 습기로 헐어버린 살부터 생활 속 발견하지 못한 질병

병의 징조를 찾아내곤 한다.

조씨는 “한번은 건조 증상이 심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로션과 바디워시를 바꿔도 건조함이 그대로라, 혹시 신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다”면서 “결국 어르신은 신장에 문제가 발견돼 현재 투석 중에 계시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려 다행이다”고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목욕을 마치고 밝아진 표정의 어르신을 보면 기분이 좋다. 자식보다 낫다며 웃어보이실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진행 행안부 “부처 협의되면 가능”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외교부의 제동으로 무산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3)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추천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당사자라도 서훈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무산됐던 양 할머니 서훈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조속히 협의해 달라고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추천으로 국민훈장 정부 포상 대상자에 양 할머니가 올랐으나 외교부가 ‘이견 있음’이라는 입장을 내놔 무산됐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외교부에 이견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재까지 추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양금덕 할머니 추천율) 철회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즉시 서훈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서훈 절차 진행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라고 질의하자, 외교부장관 직무대리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일단 주무 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재진행하는데 특별한 장애 사유는 없어보인다”며 “외교부도 수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밝힌 만큼 조속히 서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북구 코로나 중단 3년 ‘사랑의 밥차’ 운영 재개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지난 3년동안 중단했던 ‘사랑의 밥차’ 운영을 재개한다.

북구는 오는 12일부터 사랑의 밥차 현장 급식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우산근린공원에서 점심 한 끼를 독거 노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장 급식이 중단됐다.

올해는 기존 배식 장소였던 우산근린공원을 국민임대주택 소재 지역 5곳으로 변경해, 취약계층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메뉴는 짜장면으로 오는 7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죽림마을주공아파트, 상오치공원, 빛고을근린공원, 양산호수공원, 문흥근린공원 등 5곳에서 돌아가며 현장 급식을 실시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사랑의 밥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송광사 등 전남 4개 사찰 ‘천왕문’ 국가 보물 되나

문화재청 대상 지정… 심의 절차

‘천년고찰’ 순천 송광사를 비롯한 전남 4개 사찰 ‘천왕문’이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최근 순천시 송광사와 고흥군 능가사, 구례군 화엄사, 영광군 불갑사에 있는 천왕문을 보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13일 전남도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들 4개 천왕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건조물 문화재 보물 지정 확대 사업 대상으로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고흥 능가사 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 4곳을 지정한다. 따라 열린다.

이 사업은 대부분 사찰의 ‘문’이 주불전(대웅전, 극락전 등)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인식돼 관리·보존이 미흡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를 전수조사해 전국 11개 사찰 금강문·천왕문을 추가 보물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중 전남 지역 사찰은 4곳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10일 송광사 사천왕문 1동(연면적 57㎡)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 천왕문은 지

난 146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609년 중수(重修·대규모 수리)했다.

공포를 기동 위와 기동과 기동 사이에도 꾸며 놓은 ‘다포’식 건축 양식을 사용했으며 추녀 없이 책을 펼쳐 엮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맞배지붕’ 등은 17세기 초반의 건축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앞서 7일에는 고흥군 능가사 천왕문 1동(연면적 68.46㎡·1666년 건립), 구례군 화엄사 천왕문 1동(연면적 64.32㎡·1636년 건립)에 대한 보물 지정 신청 자료보고서가 전남도에 접수됐다. 영광군 또한 지난달 31일 불갑사 천왕문 건축물 1동(연면적 59.74㎡·1608-1620년 사이 건립)에 대

한 자료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17세기의 우리나라 건축 특징을 두루 갖고 있으며, 17세기 초·중·후반 건축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어 학술·건축·미술적 가치가 높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보물 지정 신청서 및 자료보고서는 전남도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문화재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자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보물 신규 지정을 예고하고 12월께 공포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천년고찰 송광사를 비롯해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들이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심의위를 통해 사군에서 제출한 서류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4개 천왕문이 국가 지정 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